

[TV]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listing TV programs from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Columns include channel, program name, and broadcast times.

박진영 “난 죽을 때까지 판따라”

6년 만에 컴백... “프로듀서 보다 가수가 더 좋아”

아시아인의 불모지인 미국 팝 시장으로 건너가 프로듀서 겸 작곡가로 입지를 다진 박진영이 6년 만에 7집 ‘백 투 스테이지 (Back To Stage)’를 발표했다. 15일 오후 9시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소케이시 겸 기자간담회를 연 그는 타이틀곡 ‘니가 사는 그집’을 노래한 뒤 “13년간 무대에서 먼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떨린다”며 “6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긴장감을 드러냈다. 그는 “35살이 되니 가장 중요한 건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며 “이제 그 해답을 알았다. 경영자, 프로듀서도 좋지만 난 판따라다. 음반에도 ‘판따라 블루스’란 곡이 있다. 한 명의 관객이 앞에 있는 날까지 무대에서 감동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이날 박진영은 ‘니가 사는 그집’과 ‘나 돌아와’ 등을 노래했고 댄스와 의상, 비주얼 아트까지 다양한 ‘키스(Kiss)’의 뮤직비디오를 선보였다. 그는 7집에 대해 “6년 전 쓴 곡부터 최근 작업한 곡까지 들어 있다”며 “나쁜 게 많지만 색깔이 없지만 좋게 말하면 다양하다. 음악을 들으면 6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진영은 또 “프로듀서와 가수 중 어떤 일을 더 만족하나”는 질문에 “예전에 가수를 할 때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이제야 머리가 맑아지며 깨달았다. 두 일 모두 행복하지만 프로듀서로 행복할 때는 재정이, 가수로 행복할 때는 재정이 아니다. 그래서 가수가 더 좋다”고 말했다.

비운의 다이어나비 다시 만난다

EBS ‘다큐10’ 22일 방송... 생전의 지인들 인터뷰 재구성

10주기를 맞은 올해 그녀의 삶을 조명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잇따라 방송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재개됐다. 비틀즈 멤버 폴 매카트니와 이혼 소송 중인 헤럴드 밀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죽기 직전의 그녀와 비교해 관심을 끌었다.

EBS ‘다큐10’은 22일 오후 9시50분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의 파란만장한 삶을 조명할 ‘다이애나 왕세자비(원제: Diana, the True Story)’를 방송한다. 미국 AETN사에서 올해 제작, 방송한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다이어나나 생전에 가까이 지냈던 측근들(친구, 미용사, 개인 트레이너 등)의 인터뷰를 재구성, 그녀의 삶을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 MHz) schedule for 7:00 AM and 5:00 PM broadcasts.

국제보청기 (국제보청기) advertisement highlighting a 30% discount on hearing aids.

케이블·위성TV 19일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programs from YTN, MBN, KTV, MBC every1, K채널, and OCN.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programs from CBS 기독교방송, CMB 광주방송, KCTV, SBS, MBC ESPN, SBS 스포츠, SBS 드라마, YTN 스타, SBS 스포츠, SBS 드라마, SBS 스포츠, SBS 드라마, SBS 스포츠, SBS 드라마, SBS 스포츠.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programs from Living, PBC 광주광역시방송, 광주불교방송, BTN(불교TV), EBS1, CNN, AFN Korea, Q채널, SBS 스토리, SBS 드라마, SBS 스포츠, SBS 드라마, SBS 스포츠, SBS 드라마, SBS 스포츠.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programs from EBS2, STAR SPORTS, KBS PRIME, and other channels.